

~~새 시대~~

누가 세대의 最後の 代知노 係를 들은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여수는 내친내 친구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두
리고 하느나고 붙는다. 이것은 너희는 내게 무엇으로 기대 하
느냐? 나는 무엇으로 하야 할까로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이
같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십니다, 라고 강한
명언하게 대답했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세례모이다. 舊約中 第
9에는 12사도 감사의 時에 그것을 맡아 집행한
사람은 골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에서 12사도 중 기름 부을 때에는 최末의 인 뜻이
있었다. 그것은 다윗포에게 와서 덕 령하다.

그것은 舊約의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최初의 인
자리다. 가령은 그가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이
복종하지 않으면 그 舊約 권제에게 저주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12사도 思想이 점점 神聖하게
舊約과 심판의 理想으로서 終末에 救死으로
나타날 의의 것으로 생각하게 이르렀다.

하마가 이같은 대답에 여수는 그렇다, 응 그렇다
라는 대답이 없이 '인자가 받듯이 받으고 받으

3)

받은 강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으로 당하리라,, 라고 주선했다. 이것이 헛벗채의
고난의 예고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한다. 그때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 전후 흑묵한
죽음의 행방을 했다.

"기름 부음을 받아라,, 라는 유언처럼 임명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의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유언의 불후의 유언장을 보게 하느니라 이니
당신 하느님의 면피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주교들은 이 예수의 유언과 유언장을
생각했다. 이것이 신의, 특히 오늘날의 신의 대표
한 유언장이다. 그들은 예수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이 수종의 질이 있기 보라 유언과 유언장을 수종으로 받은
후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기에 예수산행의 후
에서 먼저 자리 다름을 했다.

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나? 지략은 바로 유언의
유언의 신의 유언이 잘못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유언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유언과 유언장의
면피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受難
이 유언에 서는 것이다, 고통의 면피를 세 목숨
의 면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신의 유언과

4
 4의 100억 달러 그 뿐이 그 수만 생각하므로
 그것으로 해산의 비용대로 휘둘러 주는 칼로 생각하므로
 해산 비용이 100억 달러가 있어서 천보승수라 불려
 독재의 길로 갈리게 됐고 자기 다름의 100%가
 되어 그 나쁜 그 사회를 안후속이 보라 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악마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xx
 우리는 또다시 그 슬픈 현실을 ~~이런~~ 보게 된다.
 근현현상 다면 ~~이런~~ 이런바 ~~이런~~
 현실은 **주지**에 불이로 불이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
 세 수백 수천으로 뻗어 나간다.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다. 우리는 **현상**이 **현상**
 있다. 누구 우리를 말장사서 이 **현상**으로 타기 한가?
 이 같은 **국민**의 모양이 **현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때도 수가 그럴수도 있고 그럴까만 된다고
 하고 그를 주지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으로 **현상**
 되면 **현상** 받은 그는 이부대로 자기가 그것으로
 해 낼까로 생각하겠고 고변할 것이다. 그가
 정말 참 사람이라면 두가지 **현상**만이 가능
 할 것이다. 이나 나는 못해 내가 그런 **현상**
 을 받을 사람이 못돼, 이나 나는 그런 **현상**
 이 되기 싫어 강도가 못돼, 왜 내가 그런 **현상**

집으로 돌아와서 그대에게 권대로 거북히거나, 아니면
생각 끝에 그대 나는 즐겁게 그대에게 구하라! 그
~~죽은 자~~ 저들 대신 그대은 실버리고 원은하면 복수
로 내대 강으로 받아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도둑이 이쁜바 선거라는것은 어떤 과정
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나?

정말 오늘도 근엄한 심은 叔力의 자리는 불꽃의
叔力이 爭取하는 3월의 무대인가? 그렇다면
그제 비로 사단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런 것이
불러 나지 않으면 ~~부~~ 어떻게 세상이 될까?

예수가 지금 그대가 그에게 복수된 것은 느리고
내가 정말 출렁해야 하나 다짐해 볼다느 하라
그런데 이 그대는 무엇으로 기대 하느냐 그분께 원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의 꼭두각시처럼 팔팔
히 포로 원하느냐 이제면 내가 죽으려는 것이지
를 다짐한다. 결국 내로 죽고 있는 자만이
후회지르 알장서라는 것이라고 피리치하러
출렁의 결심은 했다. 그 출렁의 뜻은 내가
수호를 받고 버림 받은 죽음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또- 그가 그것으로 하느냐의 불충과 후
우자나 ~~이~~ 때만 알고 그대의 환생까지 해가

6. $\frac{2}{3}$ 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가?

출항'란 여권을 사전에 찾은 것이다. 그런데 홍콩은
출항 ~~출~~ 발로 타고 할정처로 진두 지휘 한다는 뜻이 이념이
생겨난다. 그러면 지금의 출항란 다른 임무자로 쓸기
가까 트리기 위해 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호
은 ~~구정화~~ 천국사 항 보는 사람처럼 구정화
누가 이겼나로 두틀로 돌행 하는 것 같은 식이다.
이게 221년라는 이로 벌써 흥크라 있는 사람이 이념가.

예수는 출애굽하기로 작심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당해에 항 수포의 조짐으로 선회해버린 도산장에 붙어
가는 복이 타기로 작심했다는 말이다.

Gettemane의 장례는 그렇고, 그 메시아 왕의 길이
멀리나 비참한 길에도 시사한다.

이것이 성서의 본래의 권통이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그 법칙을 본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라 하기에 모세는 이같이 나는 법칙
을 알았다. 너는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다스리라
네 백인 백인으로 하고 계승히 하라니 결국 왕려
하는 신령 하라. 그러고는 신령 하라 기인했다.

여수의 이 책장을 정리하는 틈틈이 보니
분명 한 자리로 성장해 온 나의 자취로만

7)
아름은 그 ~~복~~복이 ~~행~~행안이 되는 이같은 통조로 복
들이 대한 ~~고~~고한 선전도로 보아 한 것이다.
— 이런 ~~것~~것은 물론하고 ~~죄~~죄는 사대하고 ~~행~~행—

그만큼 이 ~~것~~것은 「누구든지 내는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복~~복은 지고 따르라. 자기 복
을 구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없는 것이요. — 자기
복을 구원 하려고 하는 사람 ~~없~~없는 사람은 구원 받
는다.」 고 하신다.

또 ~~이~~이 ~~가~~가 ~~영~~영아원까지 ~~경~~경한 ~~한~~한 이야기.

어떤 ~~것~~것은 모일기에도 내게 시선이 모이고 내게
어떤 기대가 있을 때 ~~정~~정말 ~~한~~한 심신한 사람으로 그 기대
에 응하려면 그것은 ~~복~~복의 각오로써만 받아
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고~~고한 ~~이~~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선이 있는데 ~~들~~들음으로 상기시킨다.
그것은 그 시선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 ~~문~~문
이다. 내게 중요한 position이 주어질 때는 ~~만~~만
그만큼 주고 하라는 말이다. ~~그~~그 ~~가~~가 ~~로~~로 ~~제~~제 때
직 할 때 ~~복~~복으로 내 ~~대~~대 각오로 ~~있~~있기 ~~하~~하 지 ~~그~~그
않고 ~~고~~고한 ~~이~~이 ~~가~~가 ~~로~~로 ~~알~~알 ~~것~~것 ~~자~~자 ~~도~~도 ~~는~~는 ~~하~~하
그 ~~아~~아 ~~내~~내 ~~있~~있는 ~~사~~사 ~~람~~람 ~~의~~의 ~~길~~길 ~~도~~도 ~~는~~는 ~~하~~하
다.

한 ~~자~~자 ~~만~~만 ~~이~~이 ~~서~~서 ~~어~~어 ~~원~~원 ~~이~~이 ~~나~~나 ~~면~~면 ~~모~~모 ~~든~~든 ~~경~~경 ~~사~~사 ~~라~~라
이 ~~가~~가 ~~만~~만 ~~이~~이 ~~가~~가 ~~즐~~즐 ~~거~~거 ~~기~~기 ~~만~~만 ~~하~~하 ~~다~~다. ~~그러~~그러 ~~나~~나 ~~한~~한 ~~보~~보 ~~후~~후 ~~이~~이

8)

탄생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이시, 어머니이시 즉二位는
 명명으로 받은것과도 같다. 정말 수모를 흘리고 피땀
 을 흘렸으니 해는 정말 구름처럼 빠신까지 흘린
 것도 없이 어머니 자궁이 있다. 경시는 경사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로 어머니이시 기쁜 복음으로
 받았다는것이 무엇으로 뜻하는지 알면 기쁘기
 만 할수는 있다.

또는 내게 어떤 수로서 돈이 생겼다고 하자.
 때때로 보면 그 돈도 내것이래기 보라는 그것
 은 잘 관리하라 그 기쁜 복음으로 받은것이다.

돈이 생겼으니 내 재산이 될수 있다. 기쁘게 하는
 것은 그를 존칭한다. 정말 진실한 사람 기쁜 복음
 받은 자로써의 자각이 있는지는 그들이 내게
 주어진 순간부터 변화의 세계로 들어선 것
 을 알아야 한다. 가족들이 이돈때문에 타락
 이 되지 않도록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까지
 과거 관습까지 이돈으로 어떻게 할(甲)하냐?
 그는 지내느같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거나 실은
 이기 취향한 조식으로 들으려한다. 이돈, 때문
 이 돈없는 사람 멸시함이 무슨 고통으로 해이
 한것이다. 그는 그돈으로 새 도둑 먹은 줄에
 양새도둑 먹은 것처럼 선것이다. '내똥탕다'
 는것은 돈의 관리자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45

주님은 당신을 그러스도 이생보다 그 후생
나는 반듯이 많이 그 받으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
당히라. 그 하대.

그 인생'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꼭꼭 하라 손에 칼로 쥐어줄 것 같고
그기 때문에 이 뜻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그는 죽음으로 갔다, 그것은 해와
불꽃의 자이다. 그러나 칼은 칼집에 쏙혀
있을 때만 해와 불꽃의 상징이지 그것을 내버
려서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살인 도구가 된다,
그러나 수호의 칼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죽은 길로 선행한 채 and, and
사람들이 그를 그 길로 올라놓았다. 시가
주는 ~~그에게~~ 칼이 되어 그의 손기³⁴ ~~가~~로
강요했다. 그는 그 칼로 조용히 받았대

그런데 그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
— 그것을 그의 친구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냈다.
그는 나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내가~~ 자기로 보인
하러 갔더니 오히려 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히
부끄러운 처지였다.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은
두 번 되라는 말씀이다. 겪은 그대로만

(11)

바로 제 선자나. 12명 명된 그 자리를 기쁜
복음으로 받은 것으로 알은 복음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기쁜 수고와 고됨으로 각오하는 자다.

그것은 4-12년의 길이다. -

~~정말 그것은 감당할 수 없었나? 그러면 그 자리~~
~~에서 도망해야 하는가? 그것은 용서를 받으리라~~
그것은 고독한 길이다. 자람은 누구도 내 손 대신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쁜 복음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후회는 이것은 천후이로
하여 각광을 천후이로 한다.

나는 Bororo의 말 한 번 더 되풀이

mein Nächste ist der, den, wenn ich
nicht helfe, niemand helfen wird.

Derjenige ist mein Nächste, der nur mich
hat, um ihn zu helfen,

Tue das, was niemand an deiner Stelle
tun wird